

한승한의 수주산업 위클리

SK증권 조선. 한승한
shane.han@sks.co.kr / 3773-9992



Ships Act 재발의 움직임과 한국 조선소 수혜

Top pick: HD 현대미포, 한화오션

- 신조선가지수는 187.11pt(-0.22pt), 중고선가지수는 177.38pt(+0.17pt)를 기록
- 작년 12월 19일, 민주당 상원의원 마크 캘리, 하원의원 존 가라맨디, 공화당 상원의원 토드 영, 하원의원 트랜트 캘리가 '미국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 이하 Ships Act)'을 공동 발의한 바 있었으나, 118대 의회가 종료됨에 따라 해당 법안은 자연스럽게 폐기됨. 하지만 해당 의원들이 이번 119대 의원직에 그대로 연임하면서 최근 Ships Act 재발의가 논의되는 중
- 미국 현지시간 5월 1일, 미국 조선업 재건을 주제로 한 토론회 개최 예정. 해당 행사에서 'Ships Act(미국 선박법)'과 'Save Our Shipyards Act(미국 조선소 보호법)'에 중점을 두고 미국 조선업의 전략적 중요성과 입법안을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 작년에 SHIPS for America Act를 공동 발의했던 마크 캘리, 트드 영, 존 가라맨디가 이번 포럼의 연설자로 참여
- 지난번 발의된 Ships Act 내용 중 핵심은 전략상선단(SCF: Strategic Commercial Fleet)을 신설하여, '25년 3월 기준 188척의 미국 국적(US-Flagged) 선박 중 국제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을 기존 약 80척에서 최대 250척 규모로 확충(차트 1. 참고)하는 것이며, '29년 회계연도 이전까지는 선령이 21년 이하인 '외국 건조선박(Foreign-Built Vessels)'도 편입 허용이라는 국내 조선 3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음
- 미국은 MSP(Maritime Security Program)와 NDRF(National Defense Reserve Fleet)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SCF의 신설 목적과 비슷한 선단을 이미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MSP의 경우 Sealift를 위한 최소한의 응급·보조 프로그램이었다면, SCF는 이를 보완하고 미국의 해운·조선업까지 재건하자는 더 넓은 범위의 프로그램 (표 1. 참고)
- 먼저 '존스법(Jones Act)'에 대한 오해를 먼저 짚고 넘어가고자 함. 존스법은 '미국 내 항만 간'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은 '미국-건조(US-Built), 미국 국적(US-Flagged), 미국 소유(US-Owned), 미국 승무원(US-Crewed)'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연방법. 따라서 미국-해외 항로와 같이 미국 단일 항구만 이용하는 국제 운송 선박에 적용되는 법이 아님
- 그렇다면 왜 그동안 미국 선주&선사들의 선박 발주가 한국 조선소에 올 수 없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음. 이는 미국 선사들의 약한 자본력, 법적/세금/승원 관련 규제로 인해 매우 높은 운용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관행적으로 미국 해운은 미국 조선업과 함께 가야 한다는 암묵적 룰이 존재하기 때문. 특히 미국 해양노조와 정치권의 압박이 강함
- 따라서 SHIPS Act 법안의 본질은 존스법을 우회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략상선단(SCF) 신설을 기반으로 국제항로 선단을 확충하여 미국 해운·조선업을 재건하려는 것이 주 목적. 존스법의 개정 및 폐지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음
- 아직은 재발의가 예상되는 Ships Act에 대한 공식적 내용은 공개된 바 없으나, 'US-Built'라는 조항 명시 여부에 따라서 국내 조선 3사로의 수혜 강도가 크게 상이해질 수 있음 (국내 조선소 vs. 필리 조선소)

한승한의 수주산업 위클리

SK증권 조선. 한승한
shane.han@sks.co.kr / 3773-9992



- 현재 미국 조선·해운 업계 분위기를 살펴보면 '미국 건조(US-Built)' 조건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번에 Ships Act를 발의했던 의원들을 포함해 공화당 쪽 다수 의원이 미국 건조 요건이 없으면 Ships Act를 지지 못한다는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해당 요건 그대로 명시될 가능성은 높은 상황
- 하지만 미국 내 상선 건조 역량은 매우 쇠퇴해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미국 조선소만으로 필요한 상선 물량 건조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 또한 아님. 따라서 과거 발의했던 내용 중 '29년 회계연도 이전까지는 선령이 21년 이하인 '외국 건조선박(Foreign-built vessels)'도 편입 허용'이라는 조항을 현재 국내 조선 3사가 '28년 상반기까지의 수주잔고가 가득 찬 상황을 고려하여 회계연도를 연장 및 재명시 할 경우, 국내 조선 3사의 수혜 가능성 높아짐'. 재발의 내용에 명시하지 않거나 기한 연장 없을 시, 중고선 매입이 현실적이기 때문에 국내 조선 대형 3사(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로의 신조 발주 수혜 가능성은 축소될 것
- 그대로 명시할 경우 SCF 선단 구성 선종(자동차운반선, 소형 컨선, 중형 탱커)과 대형 조선사 대비 백로그 레벨이 짧은 점 고려하면, HD현대미포의 수주 가능성 높아질 것으로 전망. 3~8K급 컨선은 HD현대삼호의 수주 가능성 높음
- 하지만 이 경우에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결국 US-Built 조항 발효를 통해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한 미국 국적/소유 선박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본토 내 조선소 보유 여부에 따라 조선 3사의 수혜 정도는 상이해질 것
- 미국 내 생산능력이 부족할 경우 기존의 MSP 선단 구성 선종인 Ro-Ro와 컨테이너선이 아닌 일부 선종(ex. LNGC)에 대해서 예외 조항 같은 유연성을 허용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음. 이와 같은 경우 USTR의 결과문 내용 중 미국 LNG 수출 LNGC 의무화 조항인 'Annex 4'와 '필리조선소'의 연계성과 관련 법안들에 관한 정책적 움직임을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결론적으로 이번 Ships Act 재발의와 승인 여부, 그리고 해당 법안의 내용과 세부조항 및 조건에 따라 종목 단에서의 수혜 강도는 상이할 수 있으나, 기준에 미국 함정 모멘텀을 받지 못했던 종목의 경우 미국 상선 건조라는 새로운 모멘텀에 의한 추가 상승 여력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판단. 조선업 비중확대(Overweight) 의견 유지

한승한의 수주산업 위클리

SK증권 조선. 한승한
shane.han@sks.co.kr / 3773-9992



표 1. MSP, SCF, NDRF 비교

구분	MSP (Maritime Security Program)	SCF (Strategic Commercial Fleet)	NDRF (National Defense Reserve Fleet)
출범 시점	1996년	2025년(예정, SHIPS Act)	1946년(제2차 세계대전 후)
주요 목적	평시 민간 상선 운영 + 유사시 Sealift 지원	미국 해운·조선 재건 + Sealift+민간운송 통합 강화	비상시 Sealift용 노후 예비선박 보유
선박 소유	민간 소유 (US-flagged, US-owned)	민간 소유 (US-built+US-flagged+US-owned, 2029년 이후 강화)	정부 소유 (MARAD 직접 관리)
평시 운용	상업 운송 자유 (정부 보조금 받음)	상업 운송 자유 (건조보조금+운항보조금 패키지)	없음 (항구 대기, 보존 상태)
비상시 운용	국방부 요청시 Sealift 전환	국방부 요청시 Sealift 전환	국방부 요청시 비상 Sealift 동원 (Ready Reserve Force 포함)
규모	약 60척	목표 250척 (LNGC, 컨선, RO-RO 포함)	약 75척 (Ready Reserve Force 포함 약 150척 수준)
건조 요건	해외 건조 선박 허용	2025~2028 외국건조 선박 한시적 허용 > 2029년 이후 미국건조(US-built) 의무화	무관 (노후선 구매 후 정부 소유)
지원 방식	운항보조금(Per ship 약 \$5.3M/년)	건조보조금 + 운항보조금 패키지	없음 (정부 직접 유지비 부담)
선박 수명	오래된 선박 많음 (평균 수명 20년 이상)	신조 선박 위주 (평균 수명 15년 이하 목표)	매우 노후 (30~50년 이상)

자료: Clarksons, SK 증권

주: Sealift란 전쟁, 비상사태, 대규모 군사작전 시에 군 장비, 병력, 군수물자(식량, 연료 등)를 해상으로 대량 수송하는 체계

그림 1. MSP(Maritime Security Program) 선박 (2024년 1월 기준)

American International Shipping, LLC
Ponte Vedra Beach, Fla.
1 Ship

ARC INDEPENDENCE - RO/RO

APL Marine Services, Ltd.
Arlington, Va.
8 Ships

PRESIDENT CLEVELAND - Containership
PRESIDENT KENNEDY - Containership
PRESIDENT FD ROOSEVELT - Containership
PRESIDENT TRUMAN - Containership
APL EAGLE - Geared Cont.
PRESIDENT EISENHOWER - Containership
PRESIDENT WILSON - Containership
APL OCEANIA - Geared Cont.

APL Maritime, Ltd.
Arlington, Va.
1 Ship

APL ISLANDER - Geared Cont.

Argent Marine Operations, Inc.
Annapolis, Md.
1 Ship

SLNC SEVERN - Con-Bulker

Farrell Lines, Inc.
Reston, Va.
5 Ships

ALLIANCE NORFOLK - RO/RO
ALLIANCE ST. LOUIS - RO/RO
MAERSK OHIO - Containership
MAERSK MONTANA - Containership
MAERSK IOWA - Containership

Fidelio Limited Partnership
Ponte Vedra Beach, Fla.
9 Ships

ENDURANCE - RO/RO
OCEAN FREEDOM - Heavy Lift
ARC DEFENDER - RO/RO
ARC COMMITMENT - RO/RO
ARC RESOLVE - RO/RO
ARC INTEGRITY - RO/RO
PATRIOT - RO/RO
LIBERTY - RO/RO
ARC HONOR - RO/RO

Hapag-Lloyd USA, LLC
Atlanta, Ga.
5 Ships

COLORADO EXPRESS - Containership
POTOMAC EXPRESS - Containership
HUDSON EXPRESS - Containership
DELAWARE EXPRESS - Containership
MISSOURI EXPRESS - Containership

Liberty Global Logistics, LLC
Lake Success, N.Y.
4 Ships

LIBERTY PRIDE - RO/RO
LIBERTY PROMISE - RO/RO
LIBERTY PASSION - RO/RO
LIBERTY POWER - RO/RO

Maersk Line, Ltd.
Norfolk, Va.
18 Ships

MAERSK HARTFORD - Containership
MAERSK DETROIT - Containership
MAERSK YORKTOWN - Geared Cont.
MAERSK COLUMBUS - Containership

MAERSK SELETAR - Containership
MAERSK SENTOSA - Containership
MAERSK CHICAGO - Containership
MAERSK PITTSBURGH - Containership
MAERSK SARATOGA - Geared Cont.
MAERSK DURBAN - Geared Cont.
ALLIANCE FAIRFAX - RO/RO
MAERSK KENSINGTON - Containership
MAERSK DENVER - Containership
MAERSK KINLOSS - Containership
MAERSK CHESAPEAKE - Containership
MAERSK KANSAS - Containership
MAERSK TENNESSEE - Containership
MAERSK ATLANTA - Containership

Patriot Shipping LLC
Houston, Tex.
2 Ships

OCEAN GRAND - Heavy Lift
OCEAN GLORY - Heavy Lift

Waterman Steamship Corp.
Washington, D.C.
2 Ships

OCEAN GLOBE - Heavy Lift
OCEAN GIANT - Heavy Lift

Waterman Transport, Inc.
Washington, D.C.
4 Ships

GREEN COVE - RO/RO
GREEN BAY - RO/RO
GREEN LAKE - RO/RO
GREEN OCEAN - RO/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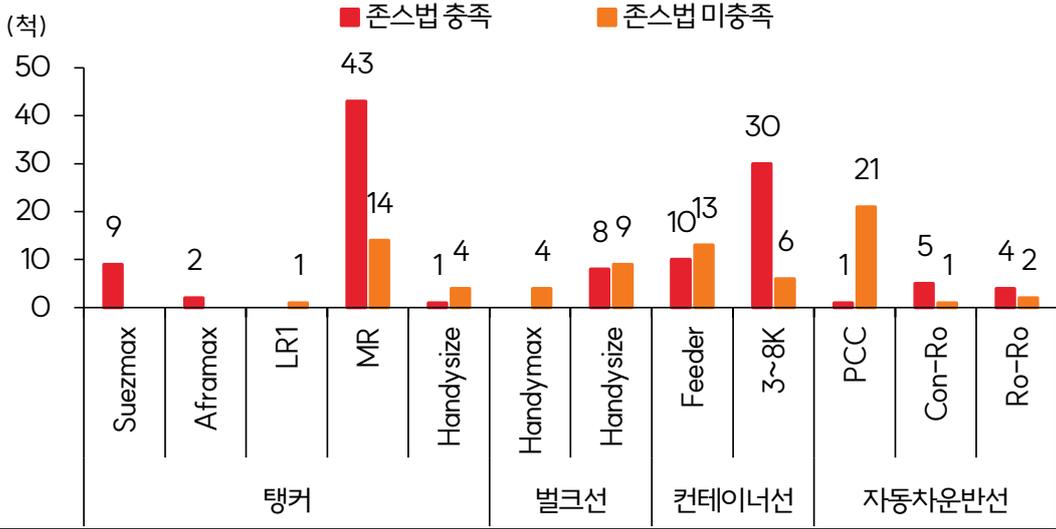
자료: MARAD, SK 증권

한승한의 수주산업 위클리

SK증권 조선. 한승한
shane.han@sk.com / 3773-9992



차트 1. 미국 국적(US-Flagged) 선박 종류 및 존스법 충족 여부



자료: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DOT), SK 증권

한승한의 수주산업 위클리

SK증권 조선. 한승한
shane.han@sks.co.kr / 3773-9992



◎ 주요뉴스

HD현대중공업, 페루와 1,500톤급 잠수함 공동개발 합의 (글로벌이코노믹 / 25.04.27)

- HD현대중공업이과 페루 시마조선소가 HDS-1500모델을 기반으로 한 신형 잠수함 공동개발 MOA를 체결
- 설계 개발 단계는 2~3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설계 완료 후 건조에는 최소 4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

HD현대삼호&삼성중공업 1조원 규모의 대만 완하이의 이중연료 컨선 4척 수주 (더구루 / 25.04.25)

- 대만 선사 완하이라인이 HD현대삼호와 삼성중공업에게 각각 16K-TEU급 메탄올 DF Ready 컨선 2척씩 발주
- 작년 10월 두 조선사에게 발주한 8척을 메탄올에서 LNG DF로 개조하는 방식을 논의한 바 있음

미 알래스카 개발 필수 '쇄빙선' 업체로 한국 대신 핀란드 고려 (더구루 / 25.04.24)

- 미 해안경비대와 핀란드 라우마 마린 컨스트럭션은 25억 유로 규모의 쇄빙선 건조 계약 협상을 진행 중
- 해당 계약에는 5척의 중형 선박과 3척의 대형 쇄빙선이 포함. 미-핀-캐는 작년 쇄빙선 관련 ICE 협정을 맺은 바 있음

◎ 신조선가 Table

선종		규모(Size)	단위	2023	2024	Last	Current	증감
Tankers (탱커)	VLCC	320,000	dwt	128.00	129.00	125.00	125.00	-
	Suezmax	157,000	dwt	85.00	90.00	86.50	86.50	-
	Aframax	115,000	dwt	70.00	75.00	72.50	72.50	-
	MR	51,000	dwt	47.50	52.00	49.50	49.00	▼0.50
Bulkers (벌커)	Capesize	180,000	dwt	67.00	76.00	74.00	73.50	▼0.50
	Panamax	81,000	dwt	35.50	37.50	36.50	36.50	-
	Handymax	62,000	dwt	33.00	34.75	34.00	34.00	-
	Handysize	35,000	dwt	26.93	27.38	26.93	26.93	-
Gas Vessels (가스운반선)	LPG	91,000	cbm	113.50	122.00	120.50	120.50	-
	LNG	174,000	cbm	265.00	260.00	255.00	255.00	-
Dry Cargo (드라이카고)	Container	23,000	teu	235.50	275.00	274.00	273.50	▼0.50
	Container	13,000	teu	158.00	183.00	180.00	180.00	-
	Container	2,750	teu	41.25	43.50	45.00	45.00	-
	Car Carrier	7,000	ceu	97.00	97.00	93.50	93.00	▼0.50
Newbuilding Price Index (신조선가지수)			pt	178.36	189.16	187.33	187.11	▼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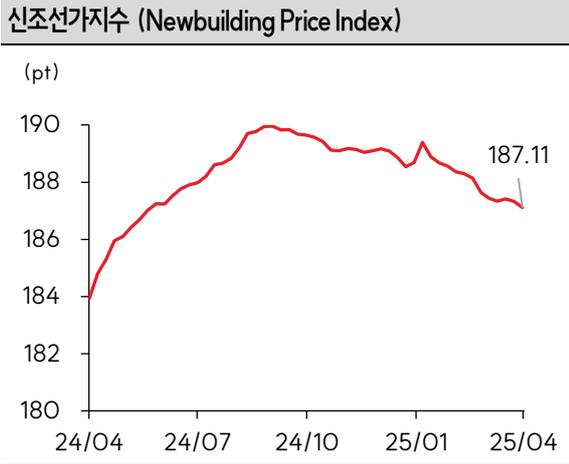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한승한의 수주산업 위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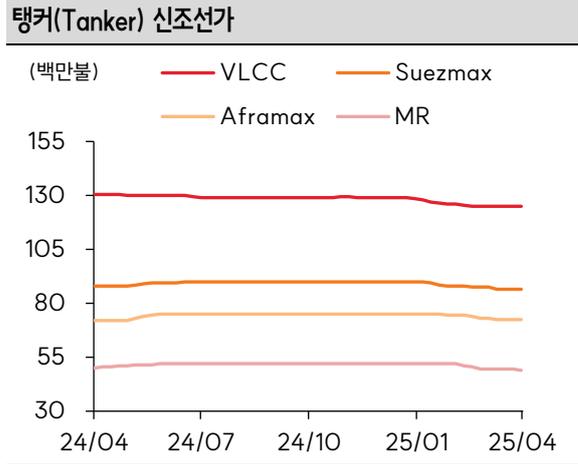
SK증권 조선훈
shane.han@sks.co.kr / 3773-9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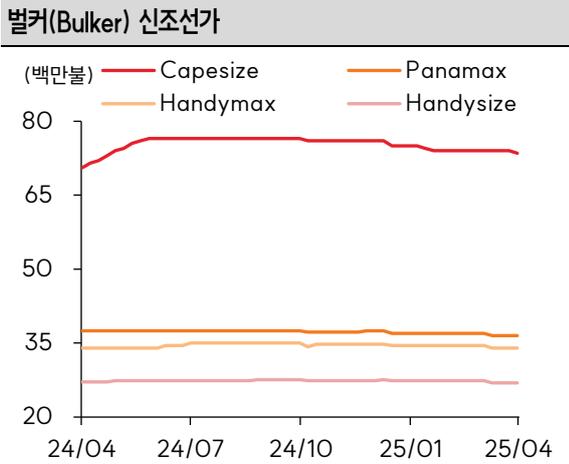
◎ 신조선가 Ch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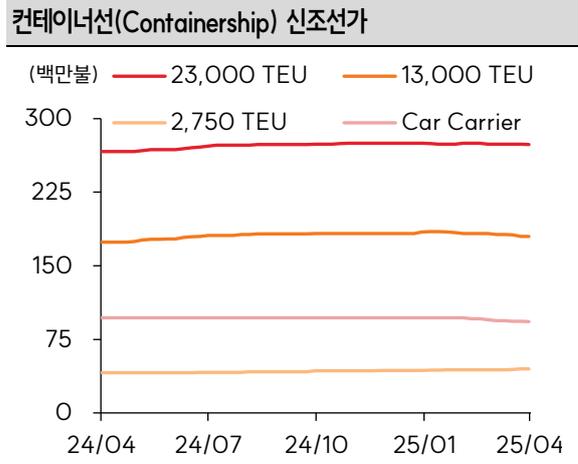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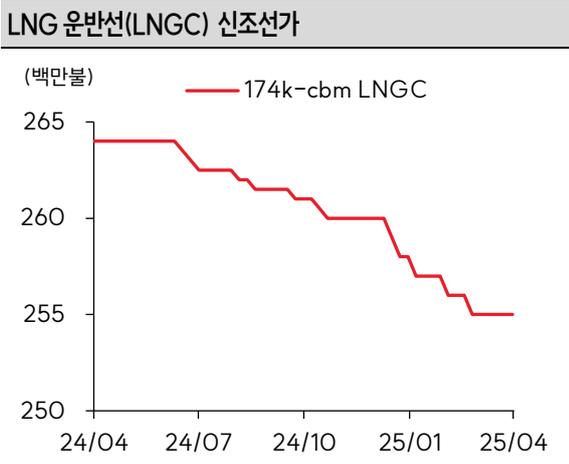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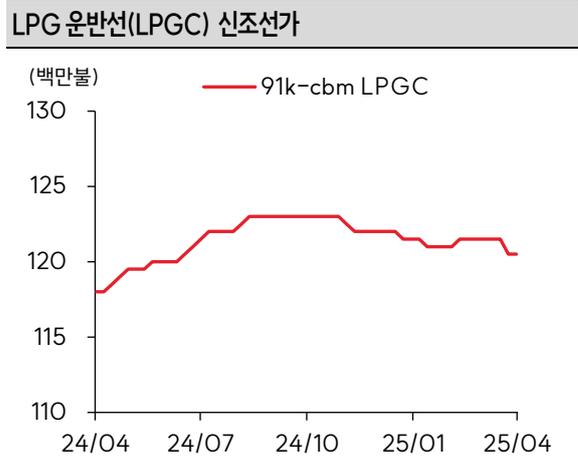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자료: Clarksons, SK 증권



자료: Clarksons, SK 증권



자료: Clarksons, SK 증권

한승한의 수주산업 위클리

SK증권 조션. 한승한
shane.han@sks.co.kr / 3773-9992



◎ 중고선가 Table

선종		규모(Size)	단위	2023	2024	Last	Current	증감
Tankers (탱커)	VLCC Resale	310,000	dwt	130.00	149.00	144.00	144.00	-
	Suezmax D/H Resale	160,000	dwt	95.00	97.00	94.00	94.00	-
	Aframax D/H Resale	105,000	dwt	83.00	82.00	75.00	75.00	-
	Panamax D/H Resale	73,000	dwt	63.00	63.00	60.00	60.00	-
	MR D/H Resale	51,000	dwt	53.00	52.00	50.00	50.00	-
	Tanker Secondhand Index			pt	207.26	203.39	197.84	197.84
Bulkers (벌커)	Capesize Resale	180,000	dwt	68.00	75.50	76.00	76.00	-
	Panamax Resale	82,000	dwt	39.50	40.00	38.50	38.50	-
	Handymax Resale	63,000	dwt	37.00	39.00	38.00	38.00	-
	Handysize Resale	38,000	dwt	33.00	34.25	33.00	33.00	-
	Bulk Secondhand Index			pt	172.22	186.83	184.60	184.16
Containership (컨테이너선)	Container 10 Yr	8,800	teu	52.00	65.00	65.00	65.00	-
	Container 10 Yr	6,600	teu	36.00	55.00	67.00	67.00	-
	Container 15 Yr	4,500	teu	21.00	40.50	40.00	40.00	-
	Container 10 Yr	2,600/2,900	teu	15.00	31.00	35.00	35.00	-
	Container 10 Yr	1,700/1,900	teu	14.00	21.50	23.00	23.00	-
	Container Secondhand Index			pt	52.06	72.77	76.01	76.14
Secondhand Price Index (중고선가지수)			pt	149.07	175.97	177.20	177.38	▲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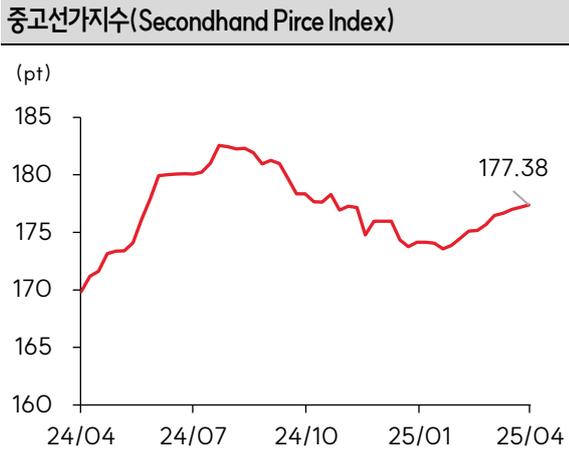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한승한의 수주산업 위클리

SK증권 조선훈. 한승한
shane.han@sks.co.kr / 3773-9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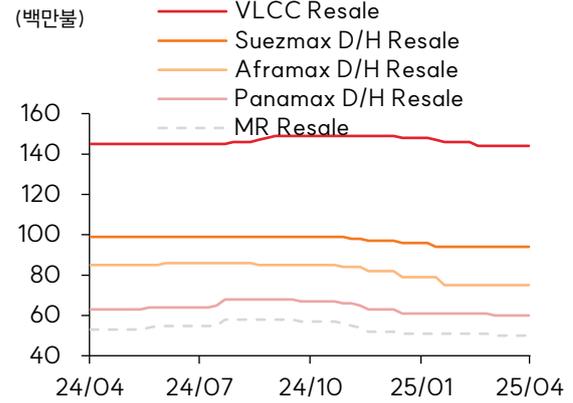


중고선가 Ch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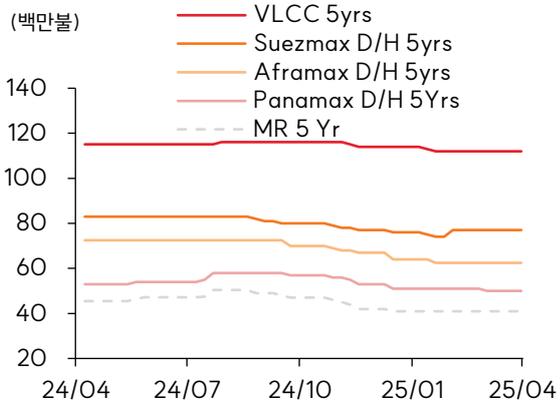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탱커(Tanker) 리세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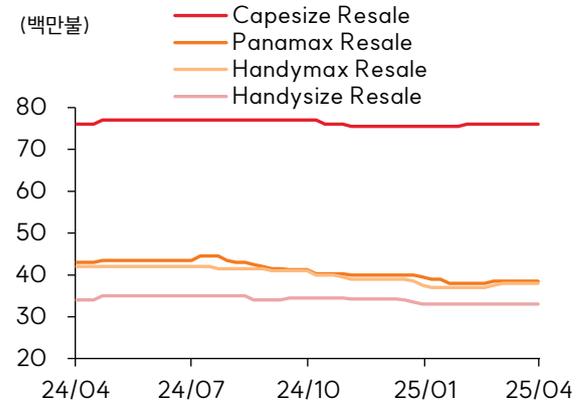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탱커(Tanker) 5yr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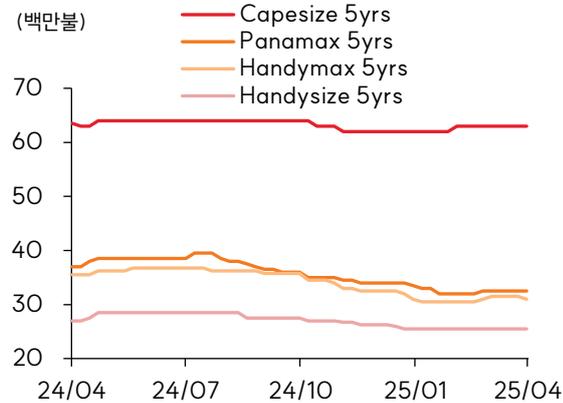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벌커(Bulker) 리세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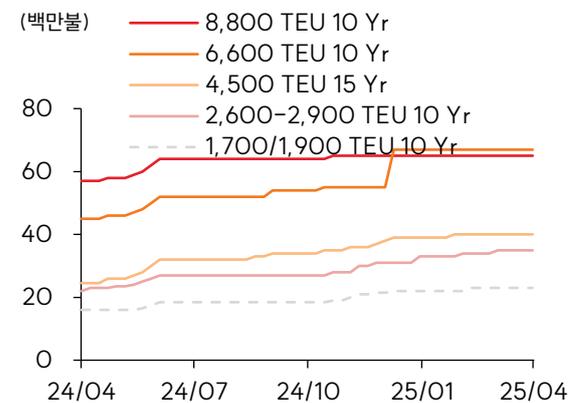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벌커(Bulker) 5yrs 중고선가



자료: Clarksons, SK 증권

컨테이너선(Container) 10yrs 중고선가



자료: Clarksons, SK 증권

한승한의 수주산업 위클리

SK증권 조선. 한승한
shane.han@sks.co.kr / 3773-9992



◎ 신조선 발주량 (Newbuilding Activity)

선종	발주 척 수			2025		
	2022	2023	2024	Last	Current	YoY
Oil Tankers	158	392	444	41	45	-70%
Chemical & Spec. Tankers	112	141	253	27	32	-65%
LPG Carriers	57	113	146	9	9	-81%
LNG Carriers	183	66	93	15	16	-45%
Bulk Carriers	557	632	538	20	37	-81%
Containerships	443	188	380	83	101	-25%
General Cargo Vessels	238	252	237	21	22	-77%
Ro-Ro/Car Carriers	93	88	76	4	4	-84%
Reefer Vessels	16	22	5	0	1	-65%
Offshore Vessels	121	91	155	37	40	-28%
FPSO/FSU	7	4	9	0	0	-100%
Passenger & Cruise Ships	48	32	60	22	24	12%
Other Misc. Vessels	33	12	16	4	7	11%
Total Contracting	2,066	2,033	2,412	283	338	-60%

자료: Clarksons, SK 증권

◎ 중고선 거래량 (Sales&Purchases)

선종		거래 척 수			2025		
		2022	2023	2024	Last	Current	YoY
Tankers (탱커)	Total No. Sales(척)	708	580	408	99	116	-33%
	Total DWT(,000)	66,777	56,769	36,938	10,512	12,810	-21%
	Total Value (\$m)	17,990	19,425	14,238	2,973	3,599	-43%
Bulkers (벌커)	Total No. Sales(척)	736	721	799	208	231	-23%
	Total DWT(,000)	50,120	54,817	59,650	16,243	17,775	-23%
	Total Value (\$m)	14,606	12,987	15,299	2,999	3,372	-40%
Other (기타)	Total No. Sales(척)	942	945	860	171	195	-20%
	Total DWT(,000)	17,770	18,597	19,588	3,739	4,177	-30%
	Total Value (\$m)	24,851	19,470	19,922	3,551	4,127	-25%
Total (합계)	Total No. Sales(척)	2,386	2,246	2,067	478	542	-24%
	Total DWT(,000)	134,667	130,183	116,177	30,495	34,762	-23%
	Total Value (\$m)	57,446	51,882	49,459	9,522	11,097	-36%
	Average\$/Dwt	427	399	426	312	319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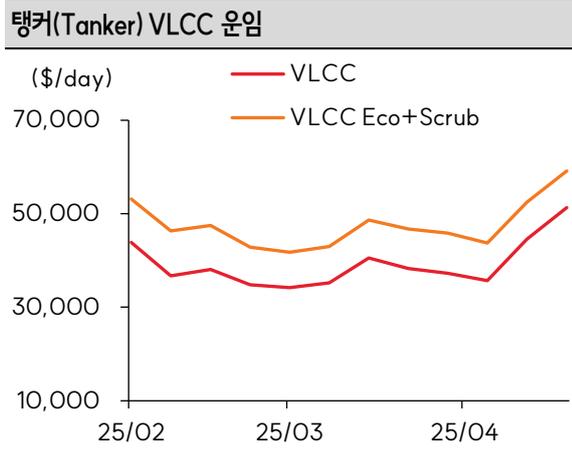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한승한의 수주산업 위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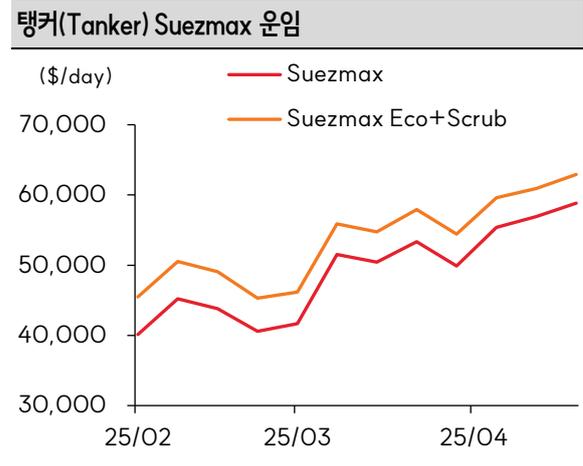
SK증권 조선훈한
shane.han@sks.co.kr / 3773-9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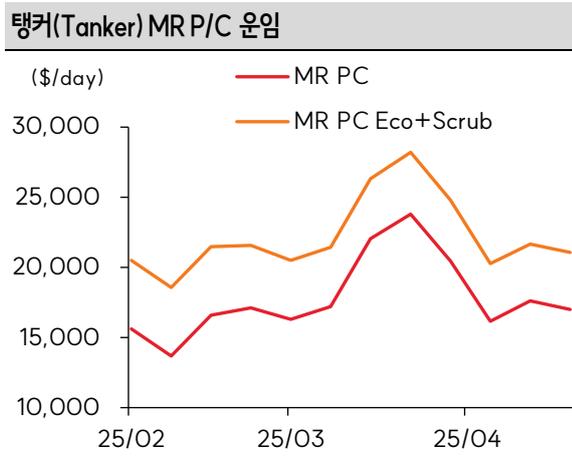
☉ 운임 Ch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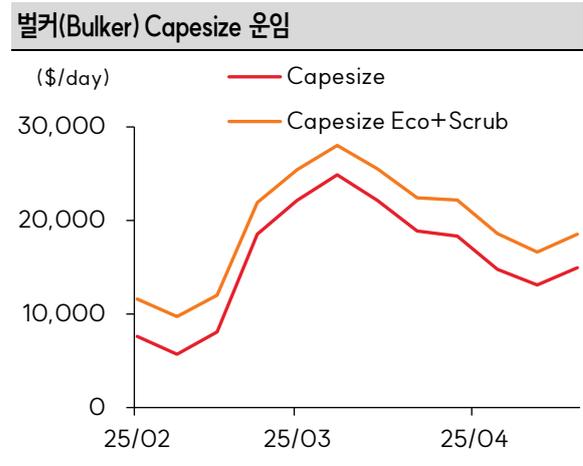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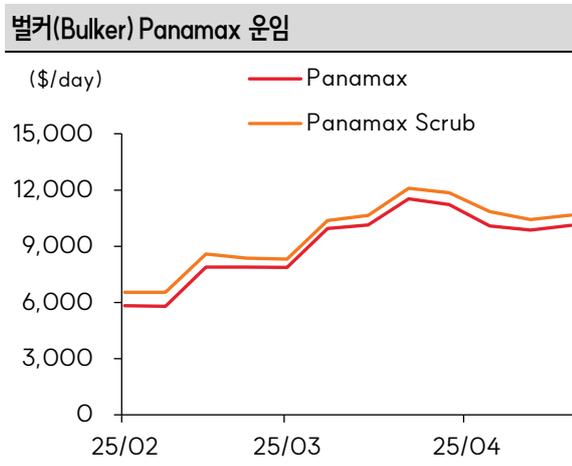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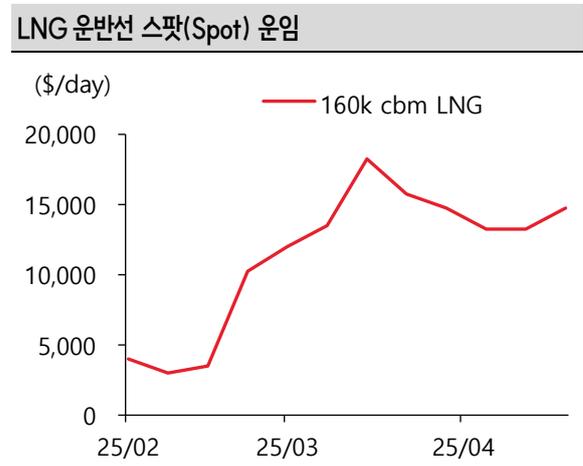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자료: Clarksons, SK 증권



자료: Clarksons, SK 증권



자료: Clarksons, SK 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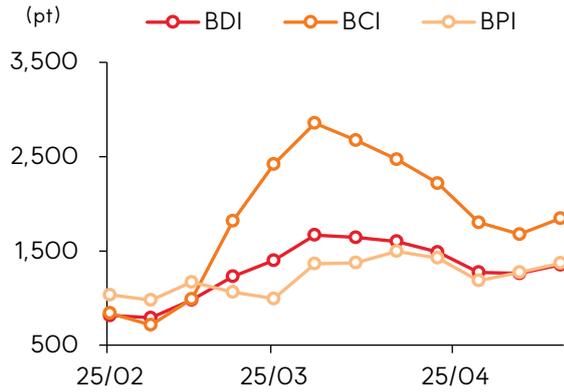
한승한의 수주산업 위클리

SK증권 조선훈. 한승한
shane.han@sks.co.kr / 3773-9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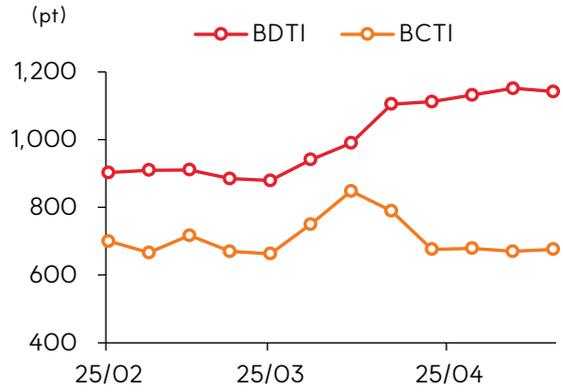
◎ 운임 & 기타 Chart

발틱 벌커(Bulker) 운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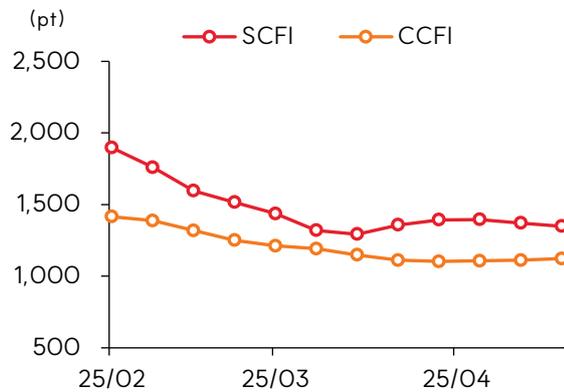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발틱 탱커(Tanker) 운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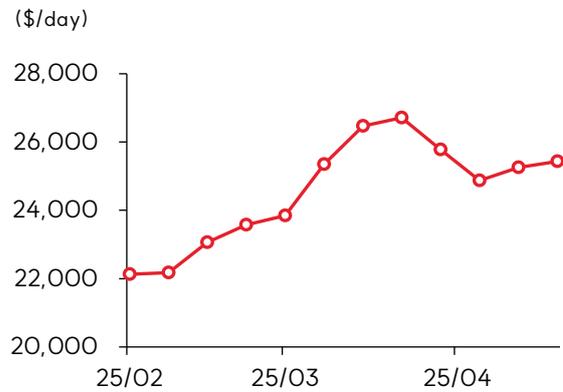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컨테이너 운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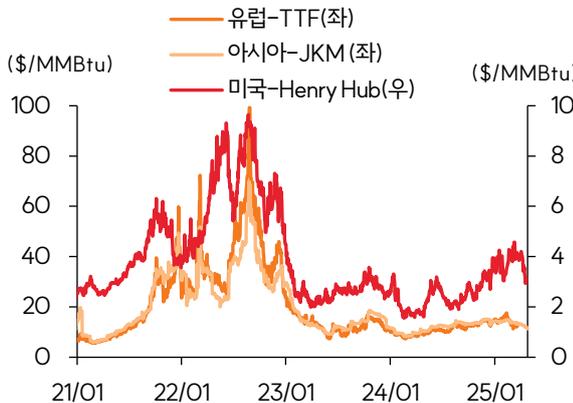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Clarksea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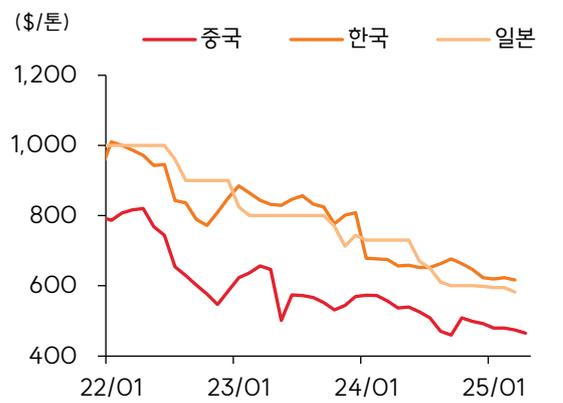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글로벌 LNG 가격



자료: Bloomberg, SK 증권

한/중/일 후판 가격



자료: Clarksons, SK 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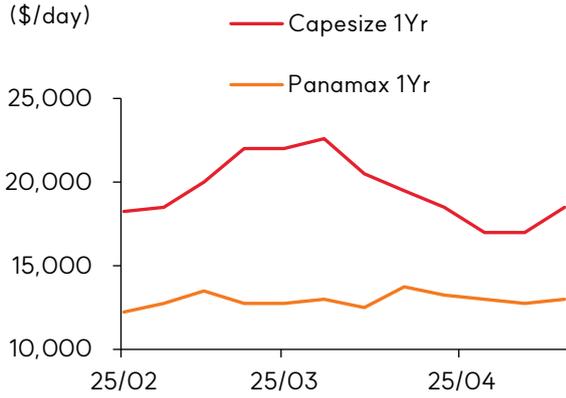
한승한 수주산업 위클리

SK증권 조선훈승한
shane.han@sks.co.kr / 3773-9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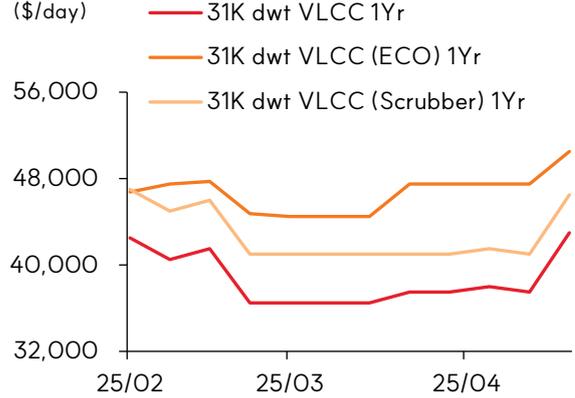
◎ 용선료(Timecharter Rate)

벌커(Bulker)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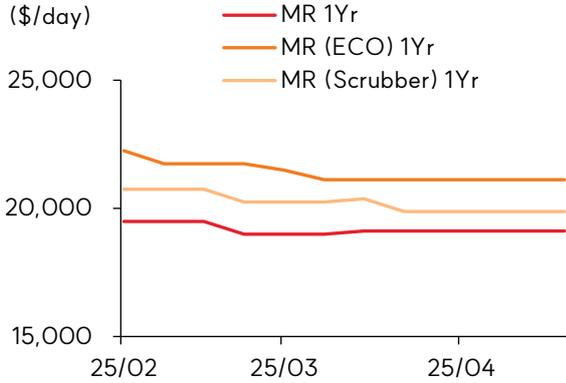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탱커(Tanker) VLCC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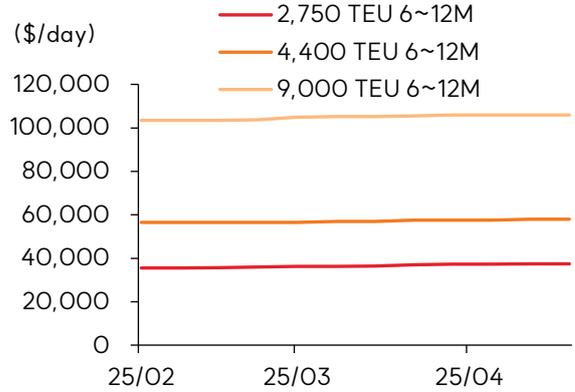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MR 탱커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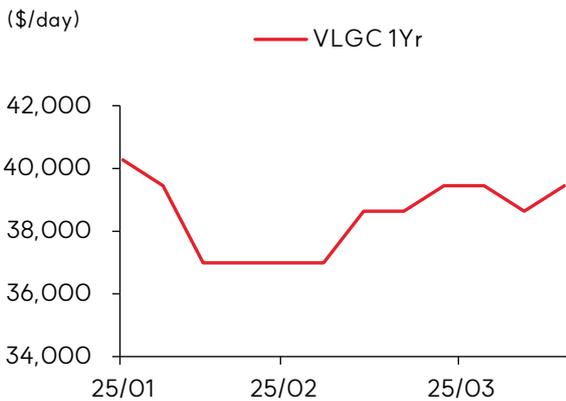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컨테이너선(Container)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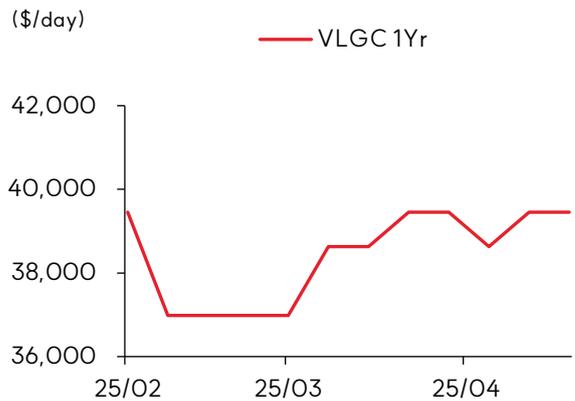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LNG 운반선(LNGC) 용선료



자료: Clarksons, SK 증권

LPG 운반선(LPGC) 용선료



자료: Clarksons, SK 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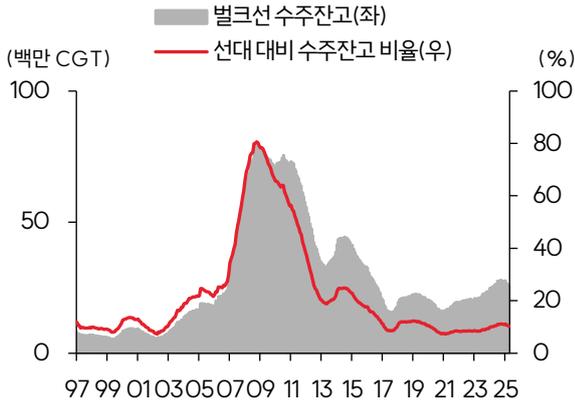
한승한 수주산업 위클리

SK증권 조선훈한
shane.han@sk.com / 3773-9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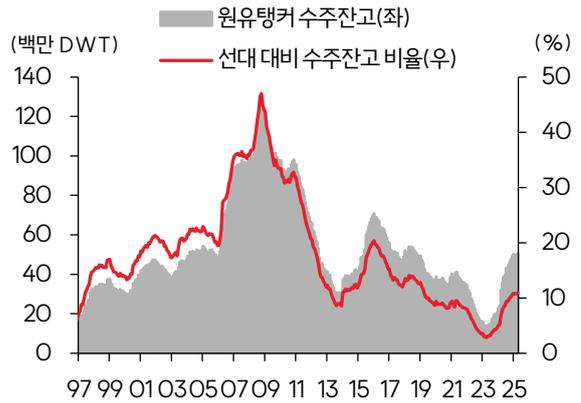
◎ 선종별 수주잔고 및 선대 대비 비율

벌크 수주잔고 및 선대 대비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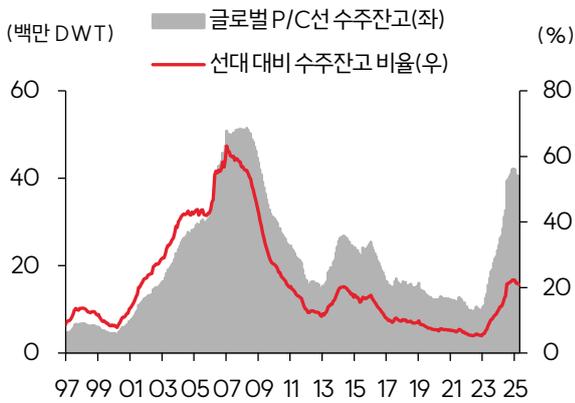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원유탱커 수주잔고 및 선대 대비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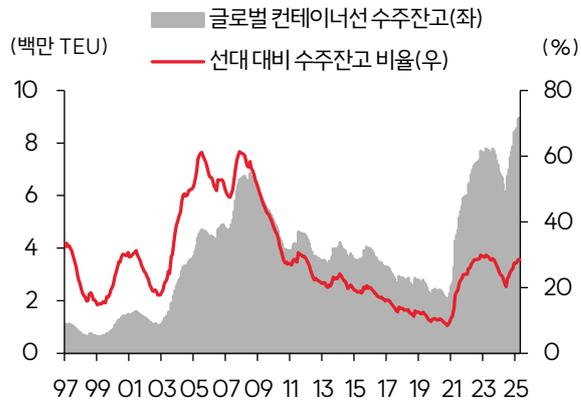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P/C선 수주잔고 및 선대 대비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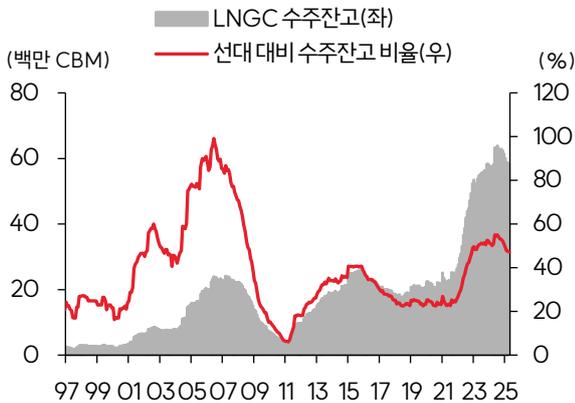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컨테이너선 수주잔고 및 선대 대비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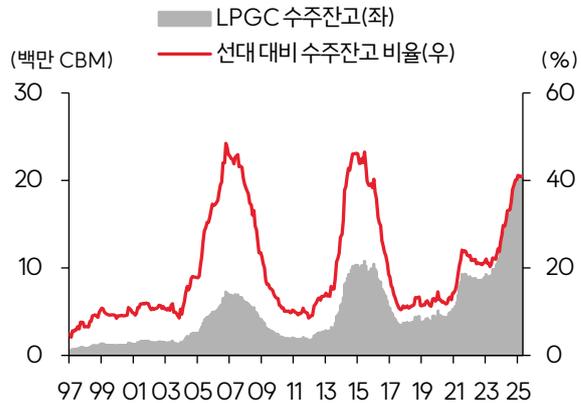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LNGC 수주잔고 및 선대 대비 비율 추이



자료: Clarksons, SK 증권

LPGC 수주잔고 및 선대 대비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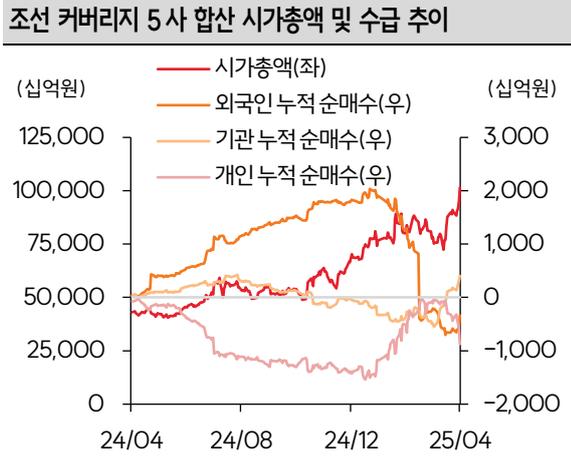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한승한의 수주산업 위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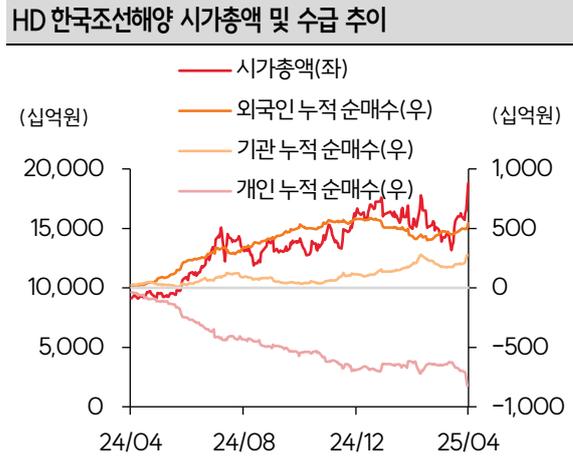
SK증권 조선. 한승한
shane.han@sks.co.kr / 3773-9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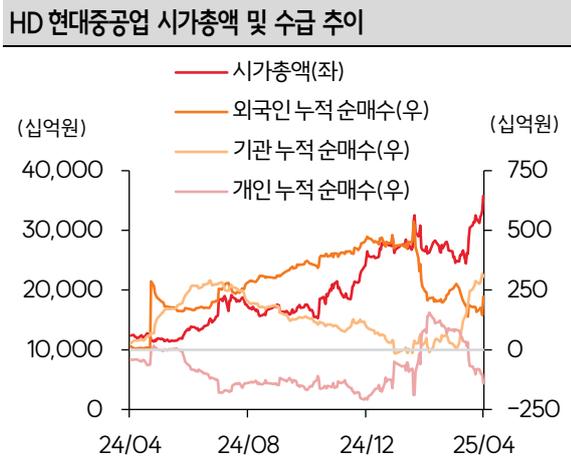
◎ 조선 커버리지 5사 시가총액 및 수급 추이



자료: Quantwise, SK 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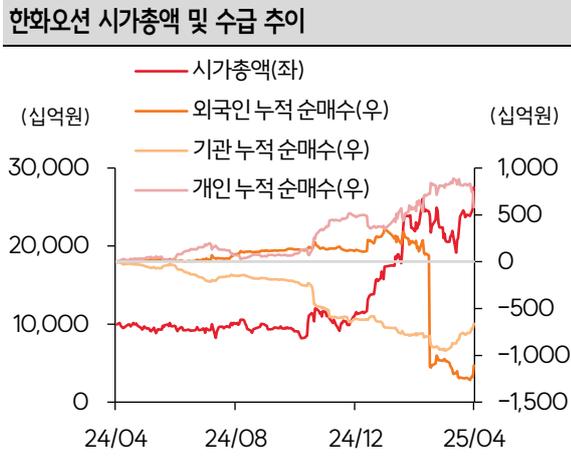
자료: Quantwise, SK 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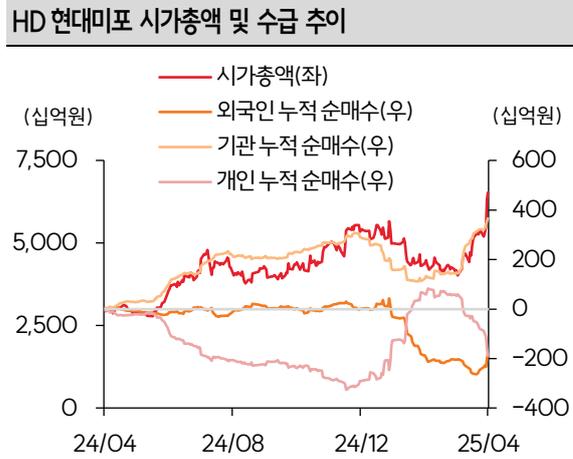
자료: Quantwise, SK 증권



자료: Quantwise, SK 증권



자료: Quantwise, SK 증권



자료: Quantwise, SK 증권

한승한의 수주산업 위클리

SK증권 조션. 한승한
shane.han@sks.co.kr / 3773-9992



◎ Coverage Table

종목명	증가 (원, pt)	시가총액 (십억원)	등락률						12M Fwd	
			1D	1W	1M	3M	YTD	1Y	P/B	P/E
코스피	2,546		+1.0%	+2.5%	-3.7%	+0.4%	+6.1%	-3.1%	0.8	8.7
WI26 조선	6,087		+5.5%	+11.2%	+25.5%	+25.7%	+38.9%	+108.3%	3.2	20.6
HD 한국조선해양	265,500	18,790	+6.4%	+17.5%	+28.0%	+16.2%	+16.4%	+108.6%	1.4	8.6
HD 현대중공업	403,000	35,776	+7.2%	+12.1%	+39.9%	+33.7%	+40.2%	+214.8%	5.1	27.0
HD 현대미포	163,500	6,531	+3.2%	+21.8%	+56.3%	+30.8%	+21.8%	+131.6%	2.8	23.3
삼성중공업	14,720	12,954	+0.9%	+1.4%	+4.6%	+14.0%	+30.3%	+55.4%	2.7	22.0
한화오션	89,900	27,547	+11.1%	+14.7%	+27.7%	+58.6%	+140.7%	+175.8%	5.0	46.0
한화엔진	27,150	2,266	+2.5%	+8.0%	+22.3%	+17.5%	+47.2%	+105.5%	4.5	24.2
HD 현대마린솔루션	158,100	7,088	+0.6%	-7.8%	+11.4%	-9.1%	-2.0%		7.6	23.2
HD 현대마린엔진	36,750	1,247	+5.9%	+8.2%	+38.9%	+34.4%	+50.3%	+121.5%	3.2	24.3
한국카본	19,750	1,025	-1.7%	+4.6%	+38.7%	+40.4%	+68.1%	+73.4%	1.8	14.5
동성화인텍	25,850	775	-1.1%	+4.9%	+13.6%	+20.2%	+73.3%	+103.9%	2.9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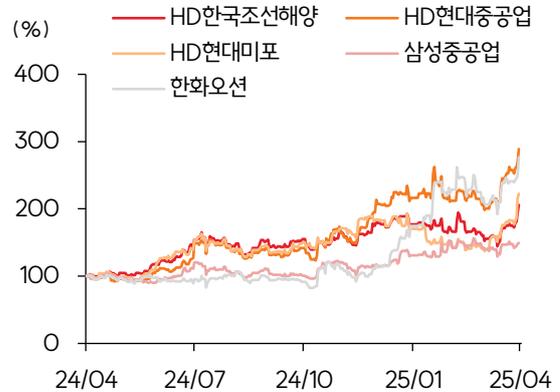
자료: Quantwise, SK 증권

코스피 vs. 조선업 수익률 추이 (1yr)



자료: Quantwise, SK 증권

조선 커버리지 5사 주가 수익률 추이 (1yr)



자료: Quantwise, SK 증권

Compliance Notice

- 작성자(한승한)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